

청각-시각적 문화를 위한 마가복음의 주석과 번역

진클라우드 로바르콜레*

박윤만 번역**

1. 들어가는 말

“청각-시각적 문화를 위한 마가복음의 주석과 번역”이라는 이 강의의 주된 목적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마가복음서에 대한 보다 더 신중한 이해를 향상시키는 것이며, 또 하나는 대상 언어(target language)가 가진 보다 더 정확하고 관련성 있는 매개(mediation)를 만들어 내는 데 있다. 바꿔 말하면, 이 글의 전체 목적은 성경의 원 문화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전승 문화를 고려하면서, 대상 즉 현대적 문화에도 역시 분명하고 자연스럽게 새로운 텍스트를 만들어 그것을 통한 [마가]복음서의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이 논문의 구체적인 목적은 워크숍 참석자들이 기본적 해석학적 도구들(본문비평, 사회과학적 연구, 문학적 접근과 상호 문화적 매개)을 접하도록 함과 함께, 여러 가지 번역이론들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또 보다 더 정확하고 적절한 동등성(equivalents)이 있는 어휘들을 그들의 언어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역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 이 강의의 가장 뚜렷하면서 구체적인 목적은 마가복음 14:1-16:20 안에 있는 수난 사화의 오디오-영상 제작을 위한 대본을 집필하는 것이다. 수난 사화가 선택된 이유는 그것의 역사적 신학적 중요성 때문이다. 사실 수난 사화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근본적이며 영향력 있는 기독교 신비의 가장 중심된 사건을 그리고 있다. 추가로 이 논문을 통해 저자가 소망하는 바는 개인적, 인종적, 공동체적 차원에서 고통과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세계에 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 강의는 교육을 위하여 각 학생이 마가복음 14-16장을 번역할 때 직면할 수 있는 낱말 문제들을 강의실에서 내어 놓고 토의할 수 있도록 이끄는 대화식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번역 방법과 관련해서 각 학생에게 요구되었던 것은 그들에게 가장 적절해 보이는 방법(행간, 직역, 기능 동등성 등)을 택하여 실제로 번역에

*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아프리카 지역 번역 컨설턴트.

** 대신대학교 강사, 신약학.

적용하는 것이다.

이 강의는 네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1) 주해, 번역, 상호 문화적 매개에 대한 개념 설명, 2) 그것의 역사적 맥락에서 마가복음 이해, 3) 마가 신학의 핵심 내용들, 4) 부활절 이야기의 오디오-영상 매개의 구체적인 예(막 14:1-16:20).

2. 주해, 번역 그리고 상호 문화적 매개

2.1. 주해

주해라는 용어는 ‘말하다’, ‘묘사하다’, ‘보고하다’, ‘설명하다’, ‘해석하다’ ‘알리다’, ‘들추어 내다’ 또는 ‘계시하다’의 뜻을 가진 그리스어 단어 ἐξηγέομαι로부터 왔다. 이 단어는 또한 *hermèneuó*(해석하다. 설명하다 또는 번역하다)와 동의어이다. 어원적으로 보면 번역하는 행위는 주해와 해석학과 동일한 의미 영역에 속한다.

비록 주해, 해석, 번역은 어원적으로 동의어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학문은 계속적으로 각각의 독립적인 영역에서 다루어져 왔다. 해석학은 철학적 해석학(보다 많은 관심을 이성의 역할 쪽에 보이고 있는 담화) 또는 신학적 해석학(하나님과 신앙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담화)의 경우와 같이 철학과 신학 텍스트를 해석하는 어떤 원리들을 연구하여 만들어 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학문 영역으로 알려져 왔다.

성경 주해는 이성적 해석학에 의해 세워진 해석학적 규칙들을 성경에 적용하고자 하는 학문으로 19세기(다시 말하면 계몽주의 시기)에 태어났다. 기록된 사실의 역사성을 구축하기 위하여 그 당시는 문서적 재구성을 통과한 것만 신뢰할 만한 텍스트로 여겼다. 결과적으로 성경 역사 비평적 주해의 목적은 원 텍스트, 성경 인물과 장소와 사건들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성경 역사 비평적 주해는 본문비평, 문학비평, 전승비평, 자료비평, 편집비평과, 보다 더 최근에 발전된 비평들 중 두서너 가지, 예를 들면 신문학 비평과 수용 비평과 같은 하위 학문을 발전시키기 시작하였다. 20세기 전반 이후 신문학 비평의 출현과 함께 성경 주해에서 성경 텍스트는 더 이상 단순히 역사적 사건들을 비추는 거울로 여겨지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의 내부적 규칙들을 충실히 따르는 문학 작품으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문학적 목록들(literary indices)은 문학적 단위와 그것의 구조, 장르, 어휘, 문체, 인물들, 상징들, 의미들을 명확히 하거나 분석하는 과정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20세기는 주로 역사적, 문학적 방법들에 의해 좌우되어 왔다. 그 방법들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결국 주해라는 용어를 이러한 방법들에게만 적용하였고, 해석학이라는 용어는 새로운 해석적 방법들, 특히 대상 독자들과 그들의 상황을 진지하게 다루는 방법들에 응용하고자 예비해 두었다. 상황을 진지하게 다루는 방법들은 독자반응 비평, 여권주의자 혹은 흑인 여권주의자(womanist) 비평, 후기 식민주의 비평, 토착화(inculturation) 비평, 해방 비평, 재구성 비평, 마지막이지만 결코 덜 중요하지 않은 상호 문화적 비평을 포함하고 있다. 성경 주해의 세 가지 모형들 각각이 논리적이지만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에 주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는 해석이라는 작업을 하는 동안 보완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사실 역사 비평적 방법은 역사적 상황에 보다 많은 집중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신문학 비평은 그 강조를 텍스트(공시적 차원)에 둔다. 새로운 주해(또는 해석학) 경향들은 대상 청자들과 더 많은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고자 한다.

2.2. 번역

번역은 의심할 바 없이 주해, 언어학, 사회 인류학적 과학 영역에서 이루어진 학문적 진보의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나 20세기 말부터 그것은 독립적인 학문 영역의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다. 상이한 번역 이론들과 실제적인 번역 행위들(특별하게 성경 텍스트의 영역 안에서)은 번역 연구의 합법성을 강화시키는 데 공헌하고 있다. 직역과, 기능 동등성(functional equivalence) 방법은 선두적인 번역 이론들로 잘 알려져 왔다. 보다 더 실제적인 수준에서 번역의 필요성은 유럽 연합(EU)의 출현 이후 점차 증가되어 왔다. 이것은 [EU 안에서] 번역된 본문들에 대해 느껴지는 어떤 당혹감을 주지 않기 위해 유럽 연합의 공식적인 언어들이 전문적으로 가장 중요한 자료들(primary sources)로 취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이다. 유사하게도, 상당히 많은 성경 텍스트들이 번역되어 배포되고, 그 번역된 텍스트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성경 주해와 성경 번역은 둘 다 하나의 구체적 대상 즉 성경 텍스트를 가지고 있다. 그것 둘 다가 동일한 해석적인 도구들(역사-문학적 문맥적 틀들[contextual frames])을 사용하여 성경 텍스트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형식 대상(formal object)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번역은 형식 또는 기능 동등성 이론을 사용하면서 원천 텍스트의 가장 뚜렷한 의미를 수용자 언어(receptor language)속에서 전달하고자 노력한다는 점에서 주해와 뚜렷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주해는 주어진 텍스트의 모든 윤곽들을 역사적, 문학적 또는 문맥적 전망으로부터 펼쳐 보이려고 노력한다. 모든 번역은 주해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비록 주해

가 번역의 절정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주해가 필연적으로 번역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2.3. 상호 문화적 매개

여기서 상호 문화적 매개는 성경주해와 번역의 한 방법으로 원 성경 문화, 교회 전승 문화, 현대 대상 문화를 포함하는 삼중 차원(삼중 유산)의 건설적 대화로 진행된다. 이러한 세 개의 문화 각각은 그 자신의 독특한 인식론상의 특권을 가진 채 인지되고 고려된다. 원 성경 문화는 성경 텍스트의 정경성(최고 선조됨, proto-ancestralship) 때문에 독특한 인식론상의 특권이 주어진다. 주어진 교회 전승 문화 역시 그것의 어른됨(elderliness, 또는 선조됨, ancestralship) 때문에 독특한 인식론적 특권으로부터 혜택을 누린다. 그리고 현대 대상 문화는 그것의 역동적, 현재적 생동감 때문에 인식론적 특권의 자격을 부여 받는다. 게다가 상호 문화적 매개는 수직적 수평적 차원 둘 다를 함축하고 있다. 수평적 상호 문화성은 현대 대상 문화와 그것의 주변문화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의 정도와 질에 관심을 가진다. 그것은 또한 당면 문제들이 이웃 문화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가는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수직적 상호 문화성은 주어진 시간 틀(예, 과거 문화, 현재 문화, 미래 문화) 안에서 서로를 대체하고 또 조명하는 문화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쏟는다. 상호 문화적 매개 방법의 경우 성경 텍스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그것의 원래적(original), 전통적, 현대적 문화를 통해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주해와 같은 효과를 발휘한다. 그리고 상호 문화적 매개가 원래적, 전통적, 현대적 문화에 의해 공유된 가장 이해가 쉬운 의미를 전달하는데 관심을 쏟는 경우에는 번역의 기능이 강화된다. 더군다나 토착화 매개는 문학적 작품뿐만 아니라 예술적 상징과 한 문화로부터 다른 문화어로 복음의 전달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탁월한 인물들(human heroes) 역시 포함한다. 상호 문화적 매개의 인식론적 가치는 삶을 증진시키는 문맥적 세계관들(contextual worldviews), 구원에 대한 예수의 진정한 메시지와 인간의 복지에 대한 교회 전승의 본질적 가르침과 같은 세 가지 요소를 근거로 측정될 필요가 있다.

각 문화가 이차 문헌(secondary literature)에 보유된 증거들을 배제 시키지 않는 범위 하에서 자연스러운 언어(natural language)를 통하여 주로 접근되어야 함에 따라 언어의 탁월한 기능은 상호 문화적 매개의 방법에서 최고치로 발휘되어진다. 원래 언어 안에 있는 성경 텍스트들을 번역하고 해석한다는 것은, 만일 이 과정이 원래 언어와 다른 언어 둘 다 안에 있는 다른 적절한 자원들을 통합시키지 않는다면, 불충분한 작업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성경에 대한 보다 더

사려 깊은 이해를 위해서 이 사실은 반드시 기억되어야 한다. 즉 성경은 원 문화적 상황과 교회 전승 상황 또는 현대 문화적 상황들 안에 놓여 있어야 한다.

주해, 번역, 상호 문화적 매개는 원천 텍스트의 원 문맥을 이해하는 데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것이 이 논문의 다음 부분이 마가복음의 역사적 배경을 밝히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이다.

3. 그것의 역사적 맥락에서 마가복음

3.1. 저작권

그리스어 제목, *kata Markon or Euangelion kata Markon*은 “원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후대 필사자(copyist)의 견해나 대중적 의견을 반영하는 것에 불과하다”(van Iersel 1998:30). 마가복음 저작권에 대한 가장 오래된 증언은 프리기아에 있는 히에라폴리스의 주교 파피아스(100-150 AD)에게 돌려진다. 그의 증언은 캐사리아의 유세비우스(260-341)에 의해 *Historia Ecclesiastica* 3.39.15에 기록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그 장로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한편으로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자가 된 후 그가 기억하는 한 많은 것들을 정확하게 기록했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주님에 의해 말해지거나 행해진 일들을 순서대로 [기록하지]않았다. 이는 그가 주님을 듣지도 따르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에, 내가 말한 것처럼, [그는] 일화들(anecdotes)에 일치하여 가르치고 있었지만 주님의 신탁들을 질서 있게 배열하지 않던 베드로를 [따랐다]. 따라서 마가는 그의 기억으로부터 [그것들을] 말했다는 점에서 어떤 일들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그가 들었던 사실들 중 하나도 빠뜨리지 않겠다는, 또는 그것들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왜곡시키지 않겠다는 그것 하나만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장로”는 요한의 제자이자 동명이인인 사람 또는 사도 요한을 지칭할 수 있다. 건드리는 그 둘 사이의 차이는 계시록과 그 안에 있는 천년왕국에 대한 입장을 그 사도가 아닌 장로에게 돌리기를 원했던 캐사리아의 유세비우스에 의해 도입되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원후 101-108년 시기 동안 저술했던 파피아스는 “마가와 마태에 관한 그의 정보가 제자요 장로였던, 다시 말하면 유명한 사도였던, 동일한 요한에게서 기원한 것으로 생각했다.” 마가의 저작권에 대한 파피아스의 설명은 반 마르시온과 단일신론 서문, 저스틴, 이레니우스, 무라토리언 경전,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터툴리안, 오리겐, 유세비우스, 에브라임, 에피파니우스, 제롬에 의해 반복되고 있다.

신약성경 정경 작품 안에서 마가와 요한 마가는 사도행전 12:12에서 자기의 집을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의 모임장소로 제공했던 여인 마리아의 아들로써 처음으로 언급되고 있다. 그는 또한 바울과 바나바의 동역자로 소개된다(행 12:25; 13:13). 후에 그는 오직 바나바의 동역자로만(행 15:37-38) 또는, 골로새서 4장 10절이 그를 바나바의 조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바울의 동역자로(골 4:10; 딤후 4:11; 몬 24)만 남게 된다. 마지막으로 마가는 베드로의 “아들”이라는 애정이 담긴 묘사로 소개된다(벧전 5:13). 교회 전승에서 복음전도자 마가는 베드로전서 5장 13절의 마가(비교. 오리겐, *Historia Ecclesiasticae* 6.25.5에 따르면)와 또는 빌레몬서 24절의 마가와 동일시되고 있다(비교. 제롬, 그의 벨레몬서 주석 안에서). 건드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파피아스의 글에 나오는 장로라는 낱말의 지시대상에 대한 책임자로 여길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다른 마가를 알지 못한다”고 결론 내린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의 공생애에 대한 마가의 유일한 또는 심지어 가장 중요한 도관이었다는 추측에 너무 많이 의존하지 않도록” 여전히 조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용 가능한 증거의 빛 아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의 마리아의 아들이면서 바나바의 조카이며, 바울의 동역자일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해석자인 마가가 동일한 이름에 따라 명명된 복음서[마가복음]의 저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할 수 있다.

3.2. 기록 연대와 위치

마가 서사는 흔히 예수의 사역, 죽음, 부활에 관한 첫 번째로 그리고 충분한 범위 안에서 기록된 이야기로 믿어져 왔다. 동시에 그것은 “복음서”로 알려진 문학적인 장르를 보다 광범위하게 발전시킨, 가장 초기의 작품으로 여겨지며, 그의 말, 행동, 고난의 신비를 통하여 예수의 인성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묘사하고 있다. 현재 형태의 다른 복음서들(누가, 마태, 요한)이 대략 한 두세기 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여겨지는 반면에, 이것은 일반적으로 대략 기원후 70년 정도에 기록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꼼꼼하게 이루어진 연구들은 마가복음서가 대략 기원후 45년과 71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파피아스의 증언에 기초해서 웬함은 로마에서 베드로의 해석자였던 마가가 그의 복음서를 45년경에 기록하였다고 주장한다. 첫째로 그는 파피아스의 증언은 베드로의 로마 도착이 42년의 예루살렘에서의 첫 번째 감옥생활로부터 벗어난 바로 직후에 일어난 것으로 보도록 허락한다고 주장한다. 둘째로, 동일한 전승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제위 기간(41-54), 즉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지기 시작한 때에 베드로가 로마에 있는 교회를 개척하였다고 주장한다. 셋째로, 그는 사

도행전 책 안에 있는 베드로의 이야기들과 이 전승 사이의 일치를 떠 올려 주고 있다. 이 모든 주장들은 외부적인 증거들에 의존해 있는 것으로 편집비평에 의해 제공될 수 있는 내부적인 증거들과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방법의 유입과 함께 마가복음의 연대 측정은 그의 종말론적인 담화(13:1-37)에 의존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담화의 어떤 요소들은(13:2, 14-23) 예언 혹은 70년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로 결말이 난 유대-로마전쟁(66-73) 사건 후에[예언된] 서사로 이해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두 번째 대안을 선택하면서 폐쇄는 복음서의 기록을 71년도 즉 성전파괴 후로 본다. 행엘은 69년도 즉 성전파괴 직전 그러나 좀 더 흥미롭게도 마가복음 13장에 기록된 재판들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네로의 박해 후로 이 작품의 연대를 측정한다.

올리브 산 담화는 유대-로마 전쟁 시기 즈음으로 마가복음의 기록 연대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결정적인 자료가 될 수 없는 것 같다. 마가복음 13의 묵시적 부분 또한 안티오쿠스 4세인 에피파네스(BC 164; 비교 단 12:9-12; 마카비전서 1:54)에 의한 성전 더럽힘과 성전 안에 세워진 가이우스 칼리굴라의 신상(기원후 40년)과 같은 어떤 다른 비극적인 사건들의 독자들을 기억나게 한다. 건드리는 “마가복음 13장은 기원후 66년에 시작한 유대 전쟁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마가의 저작물을, 만일 증거가 지지하면, 그 전쟁 전으로 자유롭게 측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마가의 주요 청자는 이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7절에서 청자들 또는 독자들은 전쟁의 소문으로 놀라지 말 것을 전해 듣는다. 전쟁들이 무엇을 의미하던지 간에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때’라는 말은 의도된 독자들이 전쟁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고 따라서 그들은 참여자 또는 희생자였기 보다는 외부인들이었다는 것을 추측하게 한다.” 이런 점에서 올리브 산 담화의 편집 비평적 분석에 기초한 내부적 증거는 복음서 기록 연대 측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건드리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제안을 하고 있다. 그는 마가복음서의 기록을 바울의 로마 감옥생활이 끝나기 직전에 일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거의 확실히 마가를 사용하였던 누가가 그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든지, 아니면 바울의 석방 직후 그러나 64-67년에 일어난 그의 순교 전에 그가 그의 책을 기록했기 때문이든지 간에, 누가는 사도행전 책을 바울의 재판의 결과를 말하지 않고 끝내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리고 그는 “사도행전 28:30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2년은 대략 60-62년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마가의 연대 측정은 마가가 네로의 제위 8년째(대략 62)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죽었다는 초기 전승들과 일치하며 또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결론 내린다. 마가복음서가 바울이 받았고 전달했던(보라, 살후 2:15; 3:6; 고전 15:3-7; 고

전 11:22를 막 14:22-25 병행절 눅 22:14-20 마 26:26-29와 비교하라) 전승의 확실한 부분이었던 가장 초기의 복음서 장르였다는 것을 고려할 때, 만일 더 많은 증거들이 허락하면, 마가복음의 기록 연대를 심지어 50년대로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까지 이 질문은 여전히 토론의 여지가 남아 있다. 그러나 이즈음에도 마가복음서의 원 위치를 논의하는 것은 역시 중요하다.

마가복음의 기원의 장소는 논쟁 중에 있다. 갈릴리(팔레스타인), 시리아, 알렉산드리아 또는 로마와 같은 여러 가지 장소들이 제안되어 왔다. 갈릴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이 그의 부활 후 예수를 그곳에서 만나야 했다고 주장한다(막 14:28; 16:7)을 강조한다. 그들은 또한 마가복음 13장은 유대 전쟁(66-73) 동안의 팔레스타인에 만연된 고통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과 갈릴리 배경은 마가가 갈릴리에 관련된 용납될 수 없는 어떤 지형학상의 실수(예, 1:16; 7:31에 있는 *thalassa tès Galilaias* [갈릴리 바다] 또는 이 호수와 5:1에 나오는 거라사 지역 사이의 상호연결[rapprochement])를 범하지 않을 수 있었던 저자로서 이해된다는 설명을 근거로 배제되어 왔다.

타이센(G. Theissen)은 마가의 *thalassa tès Galilaias* 표현을 사용한 예는 갈릴리 호수를 위해서는 부적절한 것임을 지적했다. 그러나 칠십인경 독자를 위해서는, 에젤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이 표현이 의심할 바 없이 섬 호수, 예를 들면 *thalassa Araba*(수 3:16), *thalassa tès Gai*(수 8:9), *thalassa Balagad*(수 12:7), *thalassa Hierakon*(수 19:46), *thalassa hè halukn*(민 18:19) 또는 *thalassa ton halon*(수 18:19)을 가리킬 수 있다. 둘째로, 어떤 표현들은 팔레스타인 또는/그리고 시리아의 삶의 정황(삶의 위치)을 들추어내는 것으로 묘사되어 왔다. 이러한 표현들은 *euangelion*이라는 용어, 마지막 만찬 전승들(14:22-25), 덕목 열거(7:21-22), 대중적 이야기(5:1-21; 6:17-29); 제자들 자신들로부터 기원한 이야기들(1:16-20; 2:14; 6:7-11; 10:17-30)을 포함하고 있다. 마가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제 이 또는 제 삼자로부터 얻었을 수 있었던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거라사(Gerasa), 거라다(Gerada), 거가세네(Gergasene) 사이에서 선택과 관련하여 여서는 “마가 또는 좀더 가능성 있는 마가 이전 전승자(pre-Markan traditioner)는 지형을 알고 있었고, 정확하게 거가세네를 언급했다고 믿는 것이,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던 후기 서기관들이 그 지형을 알고 있었고 거라세네(Gerasenes)에 대한 마가의 잘못된 언급을 수정했다고 믿는 것과 심지어 오리겐이 첫 번째로 그것을 수정했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영향을 주었다고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이야기가 거라사 지역이 아니라 가다라(Gadara) 근처에서 발생했다. 두 지역 모두 데카폴리스의 잘 알려진 도시들이지만 거가사(Gergasa)는 아니었다. 마태와 같은 시리아인의 중요한 무역 중심지인 가다라—

또한 철학의 중심으로 알려진—는 단지 그 호수로부터 대략 6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그곳까지 영역이 미치고 있었다—그 영역은 호수로부터 30마일 이상에 위치해 있는 거라사 지역에게까지는 미칠 수 없는 어떤 것이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 나오는 지질학적으로 당혹스러운 *Gerasenôn*에 대한 광범위한 초기 증명은 이러한 입장을 지지한다. 반면에 마태 텍스트가 초기 몇 세기 동안 우위를 차지하였던 경향은 마가와 누가의 본문 전승으로 *Gadarenon*의 초기 유입[의 이유를]을 설명할 수 있다.” *Gerasenôn* 또는 *Gadarenon*에 대한 읽기는 애매한 거게사(*Gergesa*)를 잘 알려진 이름으로 대체하기 위해 삽입되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5장 1절의 가장 원 본문에 가까운 읽기는 거가사네스(*Gergasenes*, *Gergesênôn*)일 것이다. 이것은 그 마을이 좀 더 명성 있는 것들 중 어떤 것들에 의해 대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마가는 지질학적인 혼돈 때문에 반드시 비난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

게다가, 알렉산드(구레네인)가 마가복음 15:21에서 언급되고 있고 또 사도행전 11:20에서는 어떤 다른 사람들[구레네인]이 안디옥(시리아) 교회 안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타이센은 시리아 배경을 선호한다. 이 주장은 마가복음 15:21과 로마 교회에서 그의 존재(롬16:13)에 대한 증거를 근거로 상쇄되어야 한다. 사실 모든 공관복음서들이 예수의 십자가가 구레네인 시몬에 의해 옮겨졌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그러나 오직 마가만 그를 알렉산드와 루포의 아버지로 밝히고 있다. 그와 같은 묘사는 “만일 로마서에서 언급된 루포가 마가복음에 언급된 루포와 동일인이고, 베드로 전승에 의해 제안된 것처럼 만일 로마 지역이 선호되면 적절한 것이 된다.

베드로 전승에 더하여 마가복음의 로마 기원은 라틴 문체(Latinism)와 같은 내부적 증거들에 의해 지지되어야 한다. 이것은 라틴 어휘들의 그리스어식 표기들을 포함하고 있다(*grabattus*=*grabattos*, 2:11; *modius*=*modiov*, 4:21; *legio*=*legiôn*, 5:9, 15; *speculator*=*spekoutatôr*, 6:27; *denarius*=*denarion*, 6:37; *sextarius*=*ksestès*, 7:4; *Caesar*=*Kaisar*, 8:27; 12:14-17; *census*=*kènsos*, 12:14; *fragello*=*fragelloô*, 15:5; *vae*=*ouai*, 13:17; 14:21; *quadrans*=*kodrantès*, 12:42; *praetorium*=*praitôrion*, 15:16; *centurio*=*kenturion*, 15:39. 이것은 또한 라틴 어휘들의 문자적 번역(*consilium*를 *sumboulion*으로 번역, 3:6; *pugno* 또는 *pugillo*를 *pugme*로 번역, 7:3)과 잘 알려진 라틴 관용어들을 비 그리스어 낱말 혼합형(un-Greek work combinations)으로 바꾼 그리스어 전환구(*hodon poieô*=*viam facere*, 2:23; *ultimum habere*=*eschatôs echô*, 5:23; *capite damnare*=*katabrinô thanatô*, 10:33; *rhapismasin lambanô*=*verberibus accipere*, 14:65; *satisfacere*=*to hikanon poieô*, 15:15; *tithemi ta gonata*=*genuaponere*, 15:19)에도 역시 적용

된다. 어떤 학자들은 마가복음서가 갈릴리 또는 시리아 기원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아람어체들(Armaisms)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람어체들은 마가복음의 원 배경과 팔레스타인 배경을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 집단들이 그곳 수신자들의 상당 부분을 형성하고 있었던 로마를 그것의 배경으로 삼는 이론을 역시 지지할 수 있다.

3.3. 청자

우리는 그들의 모임의 장소, 사회-정치적, 종교적 배경, 문화적 환경(언어와 극장)이라는 관점으로부터 로마 청자의 특징들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원한다. 1세기에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곤 했던 장소가 카타콤이라는 사실은 광범위하게 알려져 왔다(예. 가장 잘 알려진 카타콤으로는 트란스테베레(Transtevere)에 위치해 있는 폰테베르드가 있다). 그러나 트와는 로마 기독교가 “카타콤의 교회”였다는 것은 신화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첫 번째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보다 유복한 가족의 일상생활 공간에서 함께 모였고, 그들은 대략 15-20명의 사람을 수용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가진 아파트(insula)의 가장 큰 방에서 만났다. 그와 같은 것들은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가정에 있는 집합 장소였을 수 있다. 그의 견해를 지지하기 위해 트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선호했던 곳에 모였고 그러한 모임이 가능한 곳에 모였다”고 2세기에 말한 저스틴(Act Just 3; 트리포와의 대화 47.2)을 인용하고 있다. 비록 유대인 회당이 기독교 복음의 선포를 위한 출발지점으로 사용되기도 했지만(행 11:19-20; 13:5, 14; 14:1-6; 17:1-7, 10, 17; 18:4-7, 19-21, 26; 19:8-9) 그러한 장소들은 “가정교회”와 다른 어떤 것일 수 없다.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가정교회들(아순그리도 그룹[16:5]의 가정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다른 사람들 주위에 있었던 가정[16:15])은 다시 말하면 아굴라와 브리스가(16:5)의 가정 안에 있었다.

사회 정치적 종교적 배경의 관점에서 본다면 대부분의 첫 번째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낮은 사회계층에 속했다. 그들은 또한 정치적인 박해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들의 종교적인 배경은 그들이 유대인 이탈리아인, 헬라인, 루포와 그의 어머니의 경우처럼, 아프리카인(롬 16:13)과 같은 다른 인종적 그룹들로부터 온 사람들을 수용하였기 때문에 유대주의자와 이교도를 포함하고 있었다.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본래 로마의 동일한 지역 특히 트라스테베레(Trastevere)와 알몬네(Almone) 강과 포르타 캠피나(Porta Capina) 사이에 있는 비아 아피아(Via Appia)의 도시 지역에 살았다. 여성들은 1세기의 중반에 로마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뚜렷한 역할을 수행한 것처럼 보인다(롬 16). 바울은 로마에 있는 어떤 여인

들을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동료 일꾼으로 환영한다(롬 16:3, 6, 12). *클레멘트 6.1*에서는 로마에 있는 여성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자로 죽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 칭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많은 여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권고되어 용감한 행동을 수행하였다.”(제1클레멘트 21:7) 이러한 여성들은 애정 어리고 정결한 성품, 신실하고 온유한 호의, 침묵, 그리고 사랑을 통해 절제된 방언을 하는 사람으로 평가된 것처럼 보인다. 문화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첫 번째 로마 기독교인들은 적어도 이중 언어(라틴어와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아람어 또는 아랍어와 같은 다른 인종의 언어를 구사하였다. 마가의 그리스어 텍스트에서 발견된 라틴어들은 로마 안에 이중 언어문화가 있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이 특정한 공동체에 적합한 표현들 안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음을 역시 보여준다. 우리는 1세기에 그리스 로마 세계는 마가의 수난 사화 안에서 발견되고 있는 묘사들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 극장 희극들에 의하여 문화적으로 영향 받고 있었다는 것을 더불어 주장할 수 있다.

베드로 전승과 이중 언어 사용(라틴어, 아람어 등등)의 빛 아래서 본다면 마가의 서사 복음의 첫 번째 청자들은 필시 1세기(기원후 41-64) 중반 즈음에 로마에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이 청자들은 가정교회로 묘사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종교와 인종적 배경으로부터 모여들었고, 대부분의 사람은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에 속했으며 문화적으로는 이중 언어 사용 문화와 극장문화에 익숙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4. 마가의 신학

마가복음의 핵심적이고 신학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의 아들(*huios theou=Filius Dei*)과 인자(*huios tou anthropou=Filius hominis*)로서 묘사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아들(Son of God)이라는 낱말의 영어 철자(대문자 소문자 경우들)는 그리스어 철자가 아닌 라틴 철자(Vulgate)를 따른다. 그리스어에서 이런 표현은 소문자나 대문자 둘 다로 표현될 수 있다. “인자(son of man)”와 관련해서 영향력 있는 영어 번역본들 중 어떤 것도 그리스어 철자를 따르지 않고 있다. 어떤 번역본(KJV, RSV)은 라틴 철자를, 다른 번역본들(NIV, GNT)은 son and man의 첫 문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주어진 철자와 번역의 선택은 분명 “son of man”을 메시아적인 또는 경의를 표하는 칭호로 여기는 이해를 포함하여 일련의 신학적인 입장들을 반영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마가의 저자가 그의 복음서를 통하여 의사소통하고자 했을 수 있는 신학적인 내용들을 고려하고자 한다.

4.1. 하나님의 아들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에게만 돌려지고 있다(1:1, 11; 3:11; 5:7; 9:7; 14:61-62; 15:39). 마가는 그의 서사 처음부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고 있다(1:1) 세례와 변화의 순간에 하늘에서 난 소리는 예수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1:11; 9:7)로 소개한다. 귀신들 역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고 있다(3:11; 5:7). 마가복음의 첫 부분(1:1-8:26)에서는 오직 나레이터(1:1), 하나님(5:7; 9:7)과 귀신들(3:11; 5:7; 비교 1:24)만 예수의 신적 아들이 됨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복음서의 둘째 부분(8:27-16:8)에서 이 신적 아들이 됨은 대제사장에 의해서는 의심되고(16:61), 예수 자신에 의해서는 확증되며(14:2) 백부장에 의해서 역시 인정된다(15:39). 마가의 핵심 강조는 뒤 따르는 부활과 승귀에서가 아닌 그의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로 정확하게 인정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에 놓여 있다고 자주 관측되어 왔다. 슈나켄부르그는 마가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출현 목록들은 12장 6절과 13장 32절을 포함하는 데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믿는다.

언급되어야 하는 또 다른 절은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바(Abba)로 부르는 14장 36절이다. 프랑스어 “papa”에 유사한 아바(abba)는 “그의 지상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친숙한 호칭이다.” 이런 점에서 그것은 “친애하는 아버지(father dear)”, “친숙한 아빠(familiar Daddy)” 또는 “나만의 친애하는 아버지”(my own dear father)이다. 버머스에 따르면 아바는 어린 시절 상황으로부터 훨씬 벗어난 엄숙한 경우들에도 역시 적용될 수 있다(예를 들면 유대가 이집트의 총독[그가 지각하지 못한 형제]을 위협할 때 이렇게 말한다: “나는 아바의 머리의 생명을 두고 맹세한다. 만일 내가 나의 칼을 칼집에서 뽑는다면 나는 이집트 땅이 살육으로 채워질 때까지 그것을 그곳에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다.”(창 44:18에 대한 Targum Neofiti)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어린아이 또는 성인은 “papa”를 그의 혈육 또는 사회적 아버지를 지시하기 위해 사용할 뿐만 아니라 부계 제도에서 아버지 쪽의 삼촌이나 또는 그/녀의 아버지의 친구를 또는 존경의 표시로 연장자를 지시할 때 역시 사용하기도 한다. 가끔씩 콩고 여성들은 남편과 시아버지를 “papa”로 부르기도 한다. 그리고 남편은 자기 아내의 아버지와 때때로 그의 아내의 삼촌 역시 “papa”로 부르기도 한다.

물론 마가복음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하는 다른 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슈나켄부르그는 마가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예수의 지상 모습과 사역을 위한 해석적 범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는다. 버머스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에 대한 마가의 기술에 관해서 이미 구

체적인 설명을 주었다:

세 가지 표현들, 즉 메시아의 신적 아들과, 하늘의 소리의 증언과, 귀신과 사람의 증언이 함께 고려된다면 그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의 자식관계가 하나님의 일반적인 부성의 일환이 아닌 특별주의를 받을 만한 현상으로서 공관복음 전승의 창조자들에 의해 묘사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한다.

마가복음과 관련하여 특별주의를 요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1:1, 11)로서 그의 임무를 시작하셨고 자신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인자”(son of man, 14:62)라는 것을 참 하나님 그리고 참 사람 되심을 통하여 끝내 보여주시고, 또 고백한 후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죽었다(15:39)다는 사실이다.

4.2. 인자

마가복음에서 “인자”는 14번 나온다(2:10, 28; 8:31, 38; 9:9, 12, 31; 10:33, 45; 13:26; 14:21상, b, 41, 62). 이러한 사용들은 세 가지 분류 안에서 설명될 수 있다: 종말론 어록(8:38; 13:26; 14:62), 수난 어록(8:31; 9:9, 12, 31; 10:33, 45; 14:21상, b, 41, 62), “인자”의 지상 사역에 연관된 어록(2:10, 28). 마가복음의 첫째 부분(1:1-8:26)은 “인자”를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 두 개 절을 포함하고 있다(2:10, 28):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위(2:10)와 안식일에 추가 될 수 있는 권위(2:28). 둘째 부분(8:27-16:8)은 인자가 그의 수난과 영광 안에 있는 것으로 묘사한다. “인자”의 고난 죽음 부활이라는 신비는 세 개의 사건들에서 엄중히 예언되었다(8:31; 9:31; 10:33). 고난은 성경(9:12)에 예언되어진 사건으로 이해되고 있는 한 제자에 의한 배반(14:21상, 하), 적들에게 넘겨지는 일(14:41)과 연관되어 설명되고 있다. 부활 그 자체는 변화산 사건을 다루는 장면 후 9장 9절에서 재확증된다. 10장 45절에서 “인자”의 죽음은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묘사된다. “인자”의 고난은 본질적으로 그의 영광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는 종교 지도자들과 심지어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겪고, 죽고 삼일 후 부활하기 위하여 반드시(*dei*) 고난을 겪어야 한다. 삼일 후 그의 부활은 그의 능력과 영광 그리고 더욱이 아버지의 영광과 능력을 증명한다. 이것은 종말론 어록(8:38; 13:26; 14:62) 안에서 분명하게 언급된 사실이다. “인자”가 이 세대를 대하여 유리한 혹은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8:38). 그가 큰 능력과 영광 중에 와서 그의 택한 자들을 모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13:26-27). 그는 권능자(하나님)의 오른 편에 앉은 것과 구름과 함께 오는 또는 가는 것을 볼 것이다(14:62). 전치사(*apo, eis...*)에 의해 선

행되지 않거나 동반되지 않을 때 동사 *erchomai*는 그 자체로서는 어떤 방향을 지시하지 않는다. 그 동사는 “오다” 또는 “가다” 둘 다로 번역될 수 있다. 마가복음 14:62에서 분사 *erchomenon* 는 따라서 “이동(moving)”으로 번역될 때 최상의 번역이 될 수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 오른 편에 앉아서 하늘 구름과 함께 이동하고 있는 인자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마가복음 14:62의 두 번째 부분은 “인자”의 영광스럽고 권능의 현현을 나타낸다(비교. 신 4:11; 5:12; 33:26에 있는 야훼의 권능의 또는 영광스러운 현현). *erchomai*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마가복음 13:26에도 적용된다.

어떤 해석자들은 종말론적인 말들(sayings)을 “인자”의 기독교적 의미를 지지하기 위하여 사용해 왔다. 이전에 주엘은 마가복음 안에 있는 “인자”는, 아람 문학이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이,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증명했다. 그에 따르면 이 표현은 아래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칭호로 여겨지지 말아야 한다: 1) 그것은 결코 술어로 나타나지 않는다, 2) 그것은 자기 언급의 수단으로서 그것을 사용하는 예수의 입술에서만 나타난다. 자기 명칭의 의미에 추가하여 마가복음 안에 나오는 “인자”라는 말의 특이성은 예수의 권위, 고난, 미래 영광을 역설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자”의 권위는 그의 지상 활동 안에서 선포되었지만 그의 수난에서는 부인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부활과 종말론적 현현에 의해 재확증된다. 그의 지상 사역 동안 자신을 “인자”로 가리켰던 예수는 그의 죽음과 부활 후에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하나님의 아들과 “인자”는 마가가 예수의 정체성과 미션을 묘사할 때 줄곧 사용하는 핵심 개념들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들의 번역은 대상 공동체가 복음서와 예수의 인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다. 뒤 따르는 부분은 구체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마가복음과 특별히 부활절 이야기가 현재의 문화 안에서 매개될 수 있을지를 명확히 설명하고자 시도할 것이다.

5. 부활절 이야기(막 14:1-16:20)의 음향-영상 매개

5.1. 부활절 이야기의 구조

아래에서 제시된 부활절 이야기의 음향-영상 매개의 구조는 역사적, 정경적 전망으로부터 제시되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예수의 부활(16:1-20)의 물리적 결과를 해석한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여기서 사건은 부활절

이야기가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여겨질 것이다. 그 후 예수의 모든 이야기와 끝이 어 그의 부활로 이어지는 수난은 기억되고 말해져야 했다(14:1-15:47). 이 에피소드는 부활절 이야기의 중반 부분을 구성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진다. 부활절 이야기의 결론은 특별한 독자, 공동체 또는 세대 각각에 의해 내려지도록 남겨졌다. 예수의 부활과 수난(부활절 이야기의 초반과 중반)에 관하여 정경 텍스트로부터 인출될 수 있는 결론들 또는 교훈들 중의 하나는 회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강한 호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적어도 부활절 이야기에 대한 현재 음향-영상 매개가 의사소통하고자 몰두하고 있는 내용이다.

A. 이야기의 시작: 예수의 부활(16:1-20)

I. 예수의 부활, 출현, 위임과 승천(16:1-20)

1. 예수께서 부활하셨다(16:1-8)
2.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열한 명을 위임하신다(16:9-18).
3.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신다(16:19-20)

B. 이야기의 중반: 예수의 수난과 죽음(14:1-15:47)

II. 예수의 죽음 준비(14:1-42)

1. 적들과 친구에 의한 준비(14:1-11)
 -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고자 계획한다(14:1-2)
 - 한 여인이 예수에게 기름을 붓는다(14:3-9)
 - 한 제자가 예수를 음해하는 음모를 꾸민다(14:10-11)
2. 유월절 식사(14:12-26)
 - 유월절 준비(14:12-16)
 - 배반의 예언(14:17-21)
 - 언약 식사(14:22-26)
3. 부인과 버림에 대한 예언(14:27-31)
 - 예수께서 그의 모든 제자들이 부인할 것을 알리신다(14:27-28)
 - 베드로는 예수의 예언에 도전을 하고 자신은 떨어져 나가지 않겠다고 맹세한다(14:29-31)

4. 겟세마네(14:32-42)

-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올리브 산에 오르신다(14:32-36)
-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잠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신다(14:37-40)
-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깨우신다(14:41-42)

III. 예수의 체포, 재판, 십자가 처형, 죽음, 장사(14:43-15:47)

1. 예수께서 체포되신다(14:43-52)

- 유다가 예수를 체포하고자 군대를 이끈다(14:43-50)
- 예수께서 붙잡혀 가신다(14:51-52)

2. 재판받는 예수(14:53-15:20상)

- 산헤드린 앞에 선 예수(14:53-65)
- 베드로의 부인(14:66-72)
- 빌라도 앞에 선 예수(15:1-20상)

3.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고, 장사되신다(15:20상-47)

-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15:20하-32)
- 예수께서 죽으신다(15:33-41)
- 예수께서 장사되신다(15:42-47)

C. 결론: 회심을 위한 호소

IV. 예수의 부활의 현실화

1.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설명하는 방법
2. 나쁜 인물들과 좋은 인물들
3. 회심의 메시지와 화해

5.2. 부활절 이야기 대본

현 대본은 CEV(Contemporary English Version)에 기초해 있다. 이 역본의 선택은 그것이 구술 의사소통에 분명하게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하나의 모형에 불과하며 각 대상 공동체는 그것 자체의 의사소통적 상황에 맞는 번역을 찾거나 직접 번역을 할 수 있다. 이 대본에 따라 부활절 이야기를 극화하는 데 관심이 있는 공동체는 저작권 문제를 의논

하고 또한 더 많은 상세한 정보와 관련하여 대본의 저자와 상호교류하기 위해 미국성서공회에 연락하기를 바란다.

A. 이야기의 시작: 예수의 부활(16:1-20)

I. 예수의 부활, 출현, 위임, 승천(16:1-20)

-음악과 춤

-**나레이터 1**: 그는 고난 받으셨고, 고난 받으셨고, 고난 받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 받으셨다.

-**나레이터 2**: 당신은 누구에 관해 이야기 하고 있는가요?

-**나레이터 3**: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나요?

-**나레이터 1**: 그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활 전 그는 고난 받으셨으며 십자가 처형을 당하여 돌아가셨고 장사 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일 후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따르는 자들 중 어떤 이들에게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바로 그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게다가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살아서 나타나셨습니다. 만일 당신이 원한다면 나는 당신에게 그것에 관해 더 많은 사실을 말해 줄 수 있습니다.

1. 예수는 부활하셨다(16:1-8)

● **나레이터 1**: 안식일 후,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죽은 예수의 몸에 바르기 위한 향료를 구입하였습니다. 일요일 아침 일찍, 해가 막 떠오를 무렵 그들은 무덤에 갔습니다(16:1-2).

●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 “누가 우리를 위해 그 돌을 무덤 입구에서 굴러 줄까?”(16:3)

● **나레이터 1**: 그러나 그들이 보았을 때 그들은 그 돌이 이미 굴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돌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른쪽에 한 젊은 남자가 흰 예복을 입고 그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16:4-6상):

● **그 남자**: “놀라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혔던 나사렛 예수를 너희들이 찾고 있구나.”(16:6하)

● **노래(부활절 주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일으키셨다, 그러므로 그는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 너희들은 그들이 그의 몸을 두었던 장소를 볼 수 있다. 이제 가서 그의 제자들 특히 베드로에게 그가 당신들 보다 앞서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 말해라. 당신들은 그가 당신에게 이미 말한 것처럼 그곳에서 그를 볼 수 있을 것이다.”(16:6하-7)

● **나레이터 1:** 그 여인들이 무덤으로부터 달려 나왔을 때 그들은 혼돈 가운데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2.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열 한명에게 소명을 주어 보내셨다(16:9-18)

● **나레이터 1:**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살아나신 후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전에 예수는 일곱 귀신을 그녀에게서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그녀는 그곳을 떠나 울며 슬퍼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고 마리아가 그를 보았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후에 그들이 마을을 떠나 그들의 길을 가고 있을 때 예수께서 또 다른 모습으로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말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그들이 먹고 있는 동안 그의 열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너무 완고하여 그가 살아나셔서 일어나신 후에 그를 보았던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런 후 그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 **예수:** “가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될 것이다. 그러나 나를 믿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징죄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나의 이름을 사용하여 귀신들을 쫓아낼 것이고 새로운 언어를 말할 것이다. 그들은 뱀을 다룰 것이며 독을 마시지만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손을 얹어 병든 사람들을 치료할 것이다.”

3.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16:19-20)

● **나레이터 1:** 주 예수께서 이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늘에 다시 올려진 후 하나님의 오른 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을 모든 곳으로 떠나 선포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수행한 기적들은 그들의 선포된 내용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 **나레이터 2:** 나에게 예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해줄 수 있나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 **나레이터 3:** 잘 들으세요. 어떻게 마가복음이 예수의 수난과 부활로 이끌었

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지를 당신에게 말해주겠습니다.

-음악과 춤(부활의 기쁨)

B. 이야기의 중반: 수난과 예수의 죽음(14:1-15:47)

II. 예수의 죽음 준비

1. 적들과 친구에 의한 준비(14:1-11)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붙잡고자 음모를 꾸민다(14:1-2)

● **나레이터 1:**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모세 율법 선생들이 비밀리 예수를 붙잡아 죽일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절기 동안에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 여인이 예수에게 기름을 붓는다(14:3-9)

●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식탁에 앉아 있다. 한 여인이 들어와 향유 병을 깨어 예수의 몸에 그것을 붓는다(14:1-3).

● **어떤 제자들:** “왜 이러한 낭비를 하는가? 우리가 이 향유를 은 삼백이상을 받고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도 있지 않은가!”

● **예수:** “그녀를 가만 두어라! 왜 그녀를 괴롭히느냐? 그녀는 나를 위해 아름다운 일을 했다. 너희들은 너희들 곁에 가난한 자들을 항상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그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너희들 곁 이곳에 항상 둘 수는 없다. 그녀는 나의 몸의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 향유를 그것에 부음으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세상 그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사람들이 그녀가 행한 일을 기억하게 될 것을 너희들은 분명히 알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한 제자가 예수를 향해 음모를 꾸민다(14:10-11)

● **나레이터 1:** 가룟 유다는 열두 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대제사장들을 찾아가 예수를 잡는 일에 그들을 돕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기쁨 중에 이 이야기를 들었고 그에게 보상의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다는 예수를 배반할 적절한 기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14:10-11).

2. 유월절 식사(14:12-26)

-유월절 준비(14:12-16)

● **나레이터 1:** 무교절 첫날이었고 유월절 어린 양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그에게 질문 하였습니다, “당신은 우리들이 어디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두 명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을로 가라. 그곳에서 물둥이를 이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가 집안으로 들어갈 때 그 집 주인에게 말해라, ‘우리 선생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그가 유월절 식사를 가질 수 있는 방을 당신이 가지고 있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 집 주인이 너를 위층으로 데리고 가 필요한 것이 갖추어져 있고 사용하도록 준비된 큰 방을 보여줄 것이다. 그곳에서 식사를 준비하라.” 그 제자 둘이 마을로 들어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 식사를 준비 하였습니다.

-배반의 예언(14:17-21)

● **예수와 제자들이 도착하여 유월절 식사를 먹기 시작한다(14:17)**

● **예수:** “나를 배반할 사람이 지금 나와 함께 먹고 있다.”(14:18)

● **제자들이 차례차례로:** “분명 당신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은 아니죠!”(14:19)

● **예수:** “그는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있는 음식을 먹는 너희 열두 중 하나입니다. 인자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배반하는 사람에게 는 끔직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다.”(14:20-21)

-언약 식사(14:22-26)

● **예수께서 빵을 취하여 축복하시고 떼신다(14:22상)**

● **노래(beraka):** “복되도다. 모든 피조물의 주 하나님. 당신의 선함을 통해 땅이 산출하고 사람의 손이 만든 빵을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생명의 빵입니다.”(성만찬 기도문)

● **예수께서 빵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 하셨다** “이것을 취하라 이것은 나의 몸이다.”(14:22하)

● **예수께서 포도주 잔을 들어 축사하셨다(14:23상).**

● **노래(beraka):** “복되도다. 모든 피조물의 주 하나님. 당신의 선함을 통하여 포도나무 열매이며 사람의 손의 산물인 포도주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음료가 될 것입니다.”(성만찬 기도문)

●예수께서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 하신다: “그것을 마셔라…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쏟는 나의 피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체결하실 것이다.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내가 마실 때까지 나는 어떤 포도주도 마시지 않을 것이다.”(14:23하-25)

●예수와 제자들이 찬양을 하였고 나가서 올리브 산으로 갔다(14:26).

3. 배반의 예언들과 버림(14:27-31)

●예수: “너희 모두가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양을 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생명으로 일으킴을 받은 후 너희 앞서 갈릴리에 가리라.”(14:29)

●베드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14:27-28)

●예수: “수탉이 두 번 울기 전 너는 이 밤에 나를 모른다고 세 번 말할 것이다.”(14:30)

●베드로: “비록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결단코 당신을 모른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14:31상)

●다른 제자들: “비록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결단코 당신을 모른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14:31상)

4. 겻세마네(14:32-42)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겻세마네라는 장소에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에 앉아 있으라.”(14:32)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신다. 근심하고 괴로워하시며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다(14:33): “내가 너무 근심되어 죽을 지경이다.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14:34)

●예수께서 몇 걸음 걸어가신 후 땅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다(14:35): “아버지, 만일 가능하다면 이것이 나에게 일어나지 말게 하소서! 아버지 당신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로 이 잔을 마시게 하심으로 고난을 겪도록 하지 마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소서.”(14:36)

●예수께서 돌아오시어 자고 있는 제자들을 발견하시고 말씀 하신다: “자고 있느냐? 한 시간 동안만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깨어 시험받지 않도록 기도하라. 옳은 것을 하기를 원하지만 언약하구나.”(14:37-38)

●예수께서 서너 차례 더 기도하러 가신다. 그리고 세 번째 제자들에게 돌아왔을 때 그가 말씀하시기를: “여전히 자며 쉬고 있느냐? 이것으로 충분하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질 때가 되었다. 일어나라! 가자. 나를 배반할 사람이 이미 여기 있다.”(14:41-42)

III. 예수의 붙잡힘, 재판, 십자가 처형, 죽음, 장사(14:43-15:47)

1. 예수께서 붙잡히셨다(14:43-50)

● **나레이터 1:** 예수께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동안 배반자 유다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열두 제자들 중의 하나였습니다. 칼과 곤봉으로 무장된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 국가의 지도자들, 모세의 율법 선생들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다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미리 말해 놓았습니다. “내가 입맞춤의 인사를 하는 사람을 붙잡아라. 그를 단단히 묶어 끌고 가라.”(14:43-44)

● 유다가 예수께 곧바로 걸어가 말한다. “선생님!” 그리고 유다가 그에게 입맞춤을 한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를 붙잡고 체포했다. 그곳에서 있던 어떤 사람이 칼을 뽑았다. 그가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귀를 잘랐다 (14:45-47).

● **예수:** “너희들이 왜 범죄자처럼 나를 잡기 위해 칼과 곤봉을 가지고 왔느냐? 날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고 성전에서 가르쳤다. 그런데도 너희들이 나를 잡지 않았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14:48-49)

● 모든 예수의 제자들이 도망가 그를 떠났다. 그들 중 하나로서 배 흠이불을 두른 한 젊은 사람이 잡혔다. 그러자 그는 그 흠이불을 뒤에 남겨 두고 벌거벗은 채 달아났다(14:50-52).

2. 재판받으시는 예수(14:53-15:20상)

-산헤드린 예수에게 질문한다. 그는 자신의 신적, 인간적 신원을 고백한다. 그리고 죽음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는다(14:53-65).

● **나레이터 1:** 예수께서 대제사장에게로 이끌려 졌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 국가의 지도자들과 모세 율법의 선생들이 다 같이 모였습니다. 베드로는 멀리서 따라왔습니다. 그가 대제사장의 안뜰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불 옆에서 몸을 녹이고자 호위병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위원회가 예수를 처형시키고자 그를 고발할 만한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하여 거짓을 말했지만 그들 자신들도 그들이 말한 것에 일치를 볼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그에 관해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14:53-57).

● **어떤 사람들:** “우리들은 그가 우리가 지은 이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또 삼일 후 아무런 도움 없이 또 다른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14:58)

● **다른 사람들:** “당신이 말한 것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14:59)

● **대제사장**(위원회 가운데 일어나 예수에게 질문한다): “당신은 왜 당신 자신을 방어하고자 어떤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요? 그들이 당신을 향해 하는 여러 고발을 듣지 않는 것이요?”(14:60)

● **대제사장이 다시 심문 한다:** “왜 당신은 왜 당신 자신을 방어하고자 어떤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요? 그들이 당신을 향해 하는 여러 고발을 듣지 않는 것이요?”(14:61)

● **예수께서는 계속 침묵 가운데 계시며 한마디도 말씀 하시지 않으신다** (14:61상).

● **다시 대제사장:** “당신이 메시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오?”(14:61하)

● **예수:** “맞소, 내가 그렇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자 하나님의 오른 편에 앉아 하늘 구름과 함께 오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이오.”(14:62)

●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단번에 그의 옷을 찢고 소리쳤다, “우리들이 왜 더 많은 증인들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당신들은 그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들었잖소! 당신들의 결정은 무엇이오?”(14:63)

● **모두가 예수께서 처형되어야만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14:64).

●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예수에게 침을 뱉기 시작했다. 그를 묶고 주먹으로 때렸다. 그리고 말하기를 “누가 당신을 때렸는지 말해 보거라!”** 그리고 호위병들이 예수를 인계받은 후 그를 때렸다(14:65).

- 베드로는 예수의 제자라는 자신의 신분을 부인한다. 그는 자신의 배반을 알게 되었을 때 운다(14:66-72).

● **베드로는 여전히 안뜰에 그대로 있다**(14:66)

● **대제사장의 한 여종이 다가와 베드로를 보고 그를 응시하면서 말한다:** “당신은 나사렛으로부터 온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14:67)

● **베드로:** “그건 사실이 아니다! 나는 당신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당신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결코 이해할 수 없다.”(14:68상) 베드로는 성문 방향으로 나갔다(14:68하).

● **수탉:** 수탉이 운다(14:68c).

● **여종이 베드로를 다시 보게 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있던 사람들에게 말**

한다, “이 사람은 그들 중 하나다.”(14:69)

● **베드로**: “아니오, 난 아니오!”(14:70상)

● **사람들 중의 어떤 이들**: “당신은 그들 중의 하나인 것이 틀림없다. 당신은 갈릴리 사람이다!”(14:70하)

●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한다**: “나는 당신이 누구에 대해 말하고 있는지 모르오.”(14:71)

● **수탉**: 두 번 운다(14:72상).

● **베드로는 예수께서 그에게 말했던 “수탉이 두 번 울기 전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라는 말을 기억하고, 울기 시작한다**(14:72하).

-음악과 춤(주제: 배반)

-**빌라도가 예수에게 질문한다**: 그는 십자가에 못박히도록 넘겨진다(15:1-20).

● **나레이터 2**: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대제사장들, 나라의 지도자들, 모세 율법의 선생들이 온 유대 공의회와 함께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묶고 빌라도에게로 끌고 갔습니다(15:1).

● **빌라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15:2상)

● **예수**: “그것은 너의 말이다.”(15:2하)

● **여러 가지 일로 예수를 고소하는 대제사장(그가 성전을 부수고 삼일 만에 그것을 지을 것이다, 그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는 말해왔다)**(15:3).

● **빌라도**: “너는 말할 것이 없느냐? 그들이 네가 어떤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는지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느냐?”(15:4)

● **예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빌라도는 놀란다**(15:5).

● **나레이터 2**: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고 빌라도는 놀랐습니다. 유월절 동안 빌라도는 항상 백성들에 의해 선택된 죄인 하나를 놓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 바라바라는 죄인 하나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다른 사람들도 폭동 때 살인죄로 체포되어 있었습니다. 군중들이 이제 와서 빌라도에게 그가 항상 했던 것처럼 죄인 하나를 놓아 주도록 간구했습니다(15:5-8).

● **빌라도**: “너희들은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15:9)

● **나레이터 2**: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시기 때문에 그에게 예수를 데리고 온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군중들에게 바라바를 놓아 주도록 빌라도에게 요구하도록 말했습니다(15:11).

● **빌라도**: “너희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한 이 사람에게 너희들은 내가 무

엇을 하기를 원하느냐?”(15:12)

●**군중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15:13)

●**빌라도**: “그러나 그가 무슨 죄를 저질렀느냐?”(15:14상)

●**군중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15:14하)

●**나레이터 2**: 빌라도는 군중을 만족시키고자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라바를 놓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병사들에게 명령하여 예수를 채찍으로 때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그 병사들이 예수를 요새의 안뜰로 이끌고 간 후 나머지 군인들을 함께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이 자색 예복을 그에게 입히고 그의 머리에는 그들이 가시 가지로 만든 관을 씌웠습니다. 그런 후 그들을 나무 막대기로 그의 머리를 내리 쳤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고 그를 경배하는 척 했습니다. 예수를 조롱하기를 끝내고 난 후에 병사들은 자주색 예복을 벗긴 후 그의 원래 옷을 다시 입혔습니다(15:15-20상).

예수의 십자가 처형, 죽음, 장사(15:20하-41)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셨다(15:20하-32)**

● **나레이터 1**: 군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자 끌고 나갔습니다. 구레네 시므온이 우연히 농장에서 오게 되었고 그들이 강제로 그가 예수의 십자가를 끌도록 시켰습니다. 시므온은 알렉산드와 루포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병사들이 예수를 “해골의 장소”로 알려진 골고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그에게 고통 완화를 위한 약이 첨가된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지만 그는 마시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누가 가질 것인지 결정하고자 내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는 아침 9시였죠. 그 십자가 위에는 그가 왜 그곳에 못 박혔는지를 말해주는 명패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하기를,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 병사들이 십자가에 두 명의 범죄자들을 하나는 예수의 오른 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못 박았습니다(15:20하-28).

● **군중**: “아하! 너는 성전을 무너뜨리고 삼일 안에 다시 그것을 짓겠다고 주장한 그 사람이구나. 너 자신을 구하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15:29-30)

● **대제사장**: “그는 다른 사람들은 구했지만 자신을 구할 수는 없구나. 만일 그가 메시아이고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그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도록 해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겠다.”(15:31-32상)

● **나레이터 2**: 그 두 범죄자들 또한 잔혹한 말들을 예수에게 했습니다(15:32하).

-**예수께서 돌아가셨다(15:33-41)**

●**나레이터 2:** 정오가 되었을 때 어둡게 변한 하늘은 오후 3시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쳤죠(15:32하-34상).

●**예수:**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바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15:34하)

●**어떤 사람들:**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15:35)

●**나레이터 3:** 그들 중 하나가 달려가 스펀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도주에 담근 후 막대에 달아 예수에게 올려다 주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15:36상).

●**사람들 중 하나:**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 주는지 기다려 보자!”(15:36하)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신 후 돌아가셨다(15:37).**

●**침묵**

●**나레이터 2:** 성전 안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단번에 찢어졌습니다. 로마 군장교가 예수 앞에서 있었죠. 그 장교가 예수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본 후 말하였습니다(15:38-39상).

●**로마군 장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15:39하)

●**나레이터 2:** 어떤 여인들이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까지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 전에 그들은 그의 제자들이었고 그가 갈릴리에 있을 동안 그를 도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도 여인들 중에 있었습니다(15:40-41).

-**예수께서 장사되셨다(15:42-47)**

●**나레이터 2:** 때는 안식일 전날이었고 유대인들은 그 거룩한 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리마테로부터 온 요셉이라 불리는 한 남자가 용감하게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요셉은 유대 공의회 of 존경받는 위원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죠. 빌라도는 예수가 이미 죽었다는 말을 듣고 놀라 군 장교를 불러 예수가 오래 전에 죽었는지 어떤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나레이터 1:** 요셉이 흠이불을 구입하여 예수의 몸을 그 십자가로부터 내렸습니다. 그가 그 흠이불에 그 시체를 감싼 후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에 그것을 두었습니다. 그런 후 그는 무덤 출입구 쪽에 큰 돌을 굴러 놓았습니다.

●**나레이터 2:**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시체가 놓인 곳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15:47).

-음악과 춤(슬픔과 애통).

C. 결론: 회심으로 초청

IV: 예수의 부활의 현실화

1.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설명하는 방법

● **나레이터 2:** 예수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 **나레이터 1:**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모세 율법의 선생들이 인자에게 지독한 고난을 안겨다 줄 것이다. 그는 버림받고 죽게 될 것이다. 하지만 삼일 후 그는 살아나서 일어날 것이다.”(8:31; 9:31; 10:33) 예수께서는 자신이 “그의 생명을 주어 많은 사람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10:45; 14:24). 게다가 예수의 고난, 죽음, 부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해 주었습니다. 산헤드린 앞에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사람이며 인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14:62).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로마군인은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15:39). 결국 그의 부활은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 알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16:6). 몇 번의 나타나심 후 그는 하늘에 다시 올려져 하나님의 오른 편에 앉아 계십니다(16:19).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1:1, 15)을 믿고 회개하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16:16).

2. 나쁜 그리고 선한 인물들

● **나레이터 2:** 나는 많은 나쁜 사람들이 예수의 죽음을 계획하였다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심으로 예수를 죽이고자 원했습니다(3:6; 11:18; 14:1; 15:10).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를 넘겨주었습니다(14:10-11). 모든 제자들은 두려워했고, 그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14:50). 군중들은 기꺼이 대제사장들에 의해 조종되어 예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15:11-13). 빌라도는 군중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를 죽음에 넘겼습니다(15:15).

● **나레이터 1:** 참으로 당신은 나쁜 사람들이 누구인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난과 죽음의 순간에 예수에게 친절을 베풀고자 했던 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레네로부터 온 시므온은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15:21). 아리마테로부터 온 요셉은 예수를 장사 지냈고요(15:43-46). 적은 수의 여인들이 그의 장사에 참석하였는데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 살로매,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15:40-41, 47).

3. 회심과 화해의 메시지

● **나레이터 2:** 저는 하나님 자신이 나쁘고 선한 인물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 그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 받았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악은 사람의 마음을 계속 장악하고자 하죠. 만일 우리들이 평화 가운데서 살기를 원한다면 선하거나 나쁘거나 우리 중 모두는 어떤 식으로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여기에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에게 돌아와 복음을 믿어라!”(1:15)

-춤이 없는 마지막 연주(화해의 상징의 교환)

<주요어>

주석, 번역, 상호 문화적 매개, 청각-시각적 문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인자, 마가복음, 예수.

<Abstract>

Exegesis and Translation of Mark for an audio-visual culture

Dr. Jean-Claude Loba-Mkole
(UBS Africa Area Translation Consultant)

The current non-print media explosion has significantly dominated the flux of communication with regard to the treatment, import and export of the messages across the globe. The majority of those messages are made of the translated texts. Indeed, translating consists of communicating and mediating a text, i.e. a translated text endeavours to deliver its message via a given medium. While the canonization process of the biblical books by Jewish and Christian traditions is largely considered as closed, no medium has so far been declared as canonical and normative be it the oral form, papyrus, scroll, painting\or print. The current shift from print to non-print media requires more creativity in order to adequately support and improve interactions between biblical texts and multi-media cultures. The present study attempts to show how an exegesis and a translated text of Mark can contribute in communicating and engaging with a contemporary audio-visual culture.